《당장 해체되여야 할 불법적인 유령기구》

지난 10월말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므로 당장 해체할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공개되자 남조선내부에서 론난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합동군사연습중단문제도 이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게 되였다, 북의 《유엔군사령부》 해체요구가 자연스럽게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문제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있다. 그러면서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결의가 통과되였고 당시 미국무장관도 해체를 공언하였으나 4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불법적으로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언급을 피할수 없고 그 순간부터 해체주장이 대세를 이룰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고 한다.

사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해체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유엔사는 유엔이 창설한 군대가 아니라 조선전쟁당시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대에 지나지 않으며 정전협정서명당사자라는 명분 하나로 지금까지 남북간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아왔다. 유엔의 기구처럼 행세해온 유엔군사령부는 오래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1975년 제30차유엔총회에서 해체결의가 통과되였다.》고 폭로한것이 이를 증명한다.

남조선언론 《뉴스 1》 역시 《실제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기를 내걸고 활동하고있지만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부르트스 갈리, 코피 아난 등 력대 유엔사무총장들도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힌적이 있다. 특히 현 카나다륙군참모총장은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있던 당시 미국이 결단하면 유엔사를 해체할수 있다고 하였다.》고 보도하였었다.

남조선의 정계에서도 《유엔사는 족보가 없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의 장애물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통일문제전문가 역시 《주한미군은 이미 북견제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조선반도주변국견제라는 목표를 가지고있다. 유엔사는 사실상 유령같은 존재가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에 의해 조작되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며 당장 해체되여야 할것이라는 각계의 주장과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본사기자 배 영 일

《력대급예산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상남도본부가 《정부의 국방예산증액, 무기증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소식을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단체는 현 《정부》가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 2 277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2017년 40조원에서 36.9%가 증가한 《력대급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거리탄도탄요격무기,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타격무기, 스텔스전투기, 중형잠수함, 특수작전대형직승기 등 북을 향한 공격적인 무기체계도입계획도 계속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5년간 국방예산증가률은 약 6.5%로 력대 어느 《정부》보다 무기증강에 몰두해왔다는 점을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강화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가 조작된 날을 맞으며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것이 벌어졌다고 한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기념식》에서 《한미련합군은 잘 준비된 련합전력》, 《확고한 대비태세》 등의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남조선미국 《동맹》관계를 미화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 저들의 반역적정체를 감싸기 위한 상전과 주구들의 추악한 광대놀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의 조작은 미군의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과 반공화국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위험한 공모결탁의 산물이였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 이후 미군무력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데 대한 내외의 압력이 고조되자 미국은 1978년 11월 7일 남조선강점 미군을 그대로 둘수 있는 《련합군사령부》를 조작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보수 《정권》도 상전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저들의 동족대결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망상으로 《련합군사령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나섰다.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도발을 위한 현지 지휘기구, 범죄적인 침략기구이다.

미국은 《련합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을 군사적 종속체계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고 조선반도에서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여왔다.

위험천만한 침략기구를 통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새 전쟁도발의 전초기지로,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교두보로 리용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는 날을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영구히 틀어쥐려는 미국의 책동도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기념식》 전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떠들어댄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전부터 미군부내에서 《반환시점》, 《검증조건》 등의 구실을 내대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공공연히 터져나오고있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까다롭고 어려운 검증단계를 설정해놓고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상전의 요구에 굴복하여 막대한 금액을 탕진하면서 남조선을 미국의 무기시험장, 무기판매전시장으로 내맡기고있다.

그들의 비굴한 처사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에서 살길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책동이다.

남조선집권자들이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대해 떠들어도 미국은 남조선을 한갓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력사와 현실이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에서 《보안법》폐지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 4일에도 시민사회단체인 《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청사앞에서 《보안법》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시위투쟁을 벌렸다.

《보안법》폐지를 위한 시위투쟁에는 앞으로 《보안법》피해자들과 종교, 문화, 학계 등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에서 《보안법 피해자증언 및 피해사례 청취회》, 《보안법폐지를 위한 전시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단상
락엽이 주는 생각

립동도 퍼그나 지나 락엽이 흩날리는 한산한 계절이다.

향방없는 바람에 이리저리 나딩구는 락엽들은 요즘 미국으로 둥지를 옮긴다고 설치는 《탈북자》쓰레기들을 련상시킨다.

삐라 살포를 비롯하여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앞장섰던 《자유북한운동련합》, 《노체인》과 같은 《탈북자》패거리들이 남조선에서도 발붙이기 힘들어 대양건너에 거점을 옮긴다는것이다.

인간쓰레기들에게 차례진 비참한 운명이다.

《탈북자》것들이 한 짓거리란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품을 배신하고 달아나서도 외세와 동족대결세력의 수족, 어용나팔수가 되여 악담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대며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린것밖에 더 있는가.

공화국을 자극하는 《가짜뉴스》들로 장식된 삐라와 USB 등을 날려보내는것으로 돈벌이나 하고 분계연선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킨것으로 하여 남조선주민들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락엽은 떨어져도 자기를 품어준 대지에 떨어지고 새 생명의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배신과 변절을 밥먹듯 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다 못해 대양건너에 쫓겨가면서도 동족을 향해 계속 짖어대겠다고 하는 《탈북자》쓰레기들은 락엽만도 못한 인간추물, 쓰레기들이 분명하다.

그런 인간오물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돈을 뿌리며 양육하다 못해 이제는 제 땅, 제 민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인간오물들을 덥석 받아안겠다고 하니 미국이라는 덩지 큰 나라는 온갖 쉬파리떼 모여드는 거대한 오물장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속심은 뻔하다.

말을 잘 듣는 사냥개나 저들의 씨부렁말을 곧잘 흉내내는 앵무새를 키우듯 푼전이나 던져주고는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재활용해보자는것이다.

집안의 쓰레기는 오물장에 내버리는것이 응당하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라는 인간오작품, 인간오물들을 쓸어내친다면 남조선인민들도 맘이 좀 편해질것이고 민족내부도 한결 깨끗해질것이다.

김 정 혁

력적당은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그렇게도 인물이 없었는가?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끝났다고 한다.

무조건 자기가 당선될것이라고 코대를 세우던 홍준표와 류승민, 원희룡은 머쓱해져서 침통한 얼굴로 자기들의 선거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가관은 윤석열이 당장 권력을 손에 쥐기라도 한것처럼 기고만장하여 《정권심판》의 흰소리를 뽑았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권하면 《립법에 충실하겠다.》,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와 리명박을 석방하겠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다.》 등으로…

그런걸 보고 쑥대에 오른 민충이의 횡설수설이라고 하던지.

-《립법에 충실》?-

검찰총장이라는 전직관념이 되살아나는 모양이다.

남조선에서 정치인들치고 《법》에 충실하지 않겠다는 인물은 하나도 없지만 《법》을 충실히 지켰다는 사람 또한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소리를 하고있으니 남조선민심은 《검찰공화국》의 제왕노릇을 하던 이전 시기를 떠올린 말이 아닌가고 하면서 윤석열이 《검찰공화국+대통령》이라는 《검통령》이 될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 리명박 석방》?-

《국민통합》에 대해 요란히 떠든것이 이전 보수 《정권》들이였지만 《종북척결》을 내걸고 남조선인민들을 《적, 아》의 《이분법》으로 갈라놓은것이 바로 그들이였다.

리명박집권시기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한다고 《종북》으로 락인한 시민사회단체만도 1 850개에 달하였고 자기를 욕했다고 문화계인물들에 대한 척결명단을 만들었던것이 바로 박근혜가 아니던가.

그러니 박근혜, 리명박처럼 정치적반대세력에 대한 척결소동을 벌리겠다는 수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살인악당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윤석열이고 보면 그가 망상하는 정치나 《국민통합》이 전두환의 살인통치와 독재통치를 닮은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뻔하다.

-《부패와의 전쟁》?-

가마가 솥을 보고 검둥아 했다던지… 본인은 물론이고 아버지, 처, 장모 등의 부패의혹을 벗지 못해 《부패덩어리》로 불리우는 윤석열이 《부패와의 전쟁》을 운운하니 삶은 소 웃다 꾸레미터질 만담이 아니겠는가.

원체 윤석열이 정계에 나서자마자 《쩍벌》, 《도리도리》, 《王자새김》을 하면서 《부정식품 먹을 자유》, 《주당 120시간로동》,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와 같이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할 때부터 풋내기만담군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희비극적인 연기를 한적은 없었다고 본다.

보는바와 같이 안팎으로 부패한 윤석열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것이야말로 썩은 콩알을 심고 사과가 주렁지게 할수 있다는 궤변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민심, 특히 중도층과 청년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별의별 《공약》을 제조해내지만 그 또한 곧이 들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남조선정계가 윤석열을 두고 《정치검찰의 선전포고》, 《최악의 후보》, 《군사독재를 넘어서는 검찰독재를 초래할 후보》로 락인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긴 없는 모양이다.

정치초년생들이 당대표를 한다, 《대선》후보로 나선다고 설치고있으니 말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윤석열이와 같은 정치무식자까지 정치를 운운하고있으니 앞으로 남조선정치판이 무엇이 되겠는지 불보듯 명백하지 않는가.

남조선에서 정치무관심층, 중도층이 날로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최 은 정

출발부터 삐걱대는 《대선》마차

특히 윤석열의 선거조직에 구태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밀려들고 청년들을 위한 변변한 《공약》 하나 내놓은것이 없는 윤석열의 태도는 젊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실망이 아닐수 없었다고 한다.

하기에 탈당하는 청년들은 《〈국민의힘〉은 로인의 힘》, 《윤석열의 승리는 구태의 승리》라고 비난하면서 래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당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벼르고있다는것이다.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에는 《국민의힘》을 더이상 지지할 리유가 사라졌다, 보수당에 리용만 당하였다고 하면서 탈당신고서와 집단탈당을 부추기는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 보수당을 당황망조하게 하였다.

더우기 젊은 층의 탈당을 두고 《위장당원들의 롱간질》, 《역선택의 증거》라며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는 윤석열측의 처사는 보수당내부에서 젊은층탈당사태를 더욱 부추기고있다.

오죽하면 당대표까지 《그렇게 젊은 층을 조롱해서 얻고저 하는 정치적리득은 무엇인가.》라고 불쾌감을 표시했겠는가.

한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서도 당대표와 윤석열과의 마찰이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자기를 내세워준 경선때의 선거조직에 사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자는것이고 당대표는 그 조직을 해체하고 전면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것이다.

햇비둘기가 재를 못넘는다는것이 윤석열의 속심이고 늙은 당나귀가 길을 안다는 속담대로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고견》을 따르겠다는것이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견이다.

그도 그럴것이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늙은이가 《국민의힘》의 《대선》 과정을 총괄하려고 전권을 넘겨받으려 한다는 설도 나돌았던것이다.

당대표와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곁에 있는 인물들을 향해 《덕》을 보려 모여든 《파리떼》, 《히에나》, 《거간군》, 《자리사냥군》으로 비하하는것으로 하여 《국민의힘》내부의 불협화음이 더 커질것이라는것이 언론들의 평이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국민의힘》의 《대선》마차가 어디까지 제대로 굴러가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세와 공명, 권력욕에 환장한 정치간상배들로 들어찬 그속에서 패거리싸움의 악청은 그칠새 없으리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류 현 철

만평 《응당한 대접》

뭇매맞은 《윤두환》

윤석열이 《대선》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광주시민들로부터 비난과 규탄의 뭇매를 맞았다고 한다.

응당한 대접이다.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망언으로 광주시민들뿐 아니라 온 남녘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윤석열이 뻔뻔스럽게 광주에 가겠다고 한것자체가 어불성설이였다.

이왕지사 찾아간바에는 광주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것이 진짜 사죄이고 진심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윤석열은 시민들이 막아섰다고 하여 5.18민주묘지에서 50m나 떨어진 곳에서 머리를 한번 까딱하고 사과를 한다는 말 몇마디 뱉아놓고는 돌아섰다는것이다.

살인마에 대한 찬양망언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고 광주행은 사과길이 아니라 나도 사과쯤은 한다는 식의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점이였다.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전두환은 아직도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앞에 사죄를 하지 않고있다.

그런 살인마를 찬양한 윤석열의 지난 망언이나 이번 광주에서의 망동은 5.18광주영령들에 대한 모독이고 광주시민들의 아물지 않는 상처를 헤집고 소금을 뿌린것이나 다름없다.

광주시민들이 윤석열을 명백히 평가하였다.

《윤두환》(윤석열+전두환).

정의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의 운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력사에 명백히 기록되여있다.

윤석열의 종말도 편치 않으리라는것은 남조선민심이 락인한 오명에 비껴있다.

《윤두환》.

본사기자 김 광 혁